

# 미국 네트워크 솔루션 관련 산업기술 한 자리에 모인 박람회

**협**회는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Networld + Interop Las Vegas 2004'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했다. 매년 5월에 열리는 이 전시회는 네트워크 솔루션 관련 전문 컴텍스로 미국 최대 전시 주관사인 미디어라이브(MediaLive)가 개최했다.

전시장은 모두 25개국에서 참여한 300여 개의 부스로 구성되었으며 3일간의 전시 기간동안 찾은 방문객 수는 3만여 명, 이 중 전문 바이어의 수만도 2만여 명이었다. 보안, 무선, VoIP 등 총 6개의 주요 테마로 꾸며진 이번 전시회는 시스코, 인텔, 시멘스, 휴렛팩커드(HP) 등 세계 굴지의 네트워크 업체들이 대거 참가하였고 시스코 존 챔버스 CEO가 기조연설을 하는 등 전시 참가업체 및 관람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켰다.

## 한국관, 해외바이어 및 관람객들로부터 호응

이번 전시회에 한국관은 삼영인텍(대표 임호열), 스텝정보통신(대표 김찬우), 새로텍(대표 박상인), 다이나믹미디어(대표 최은자), 일레

자인(대표 장도호), 비비비솔루션(대표 김기석), 엠씨테크(대표 이기춘), 랜버드테크놀로지(대표 박종민), 뉴그리드테크놀로지(대표 이형모), 데이터커러스(대표 고재용) 등 네트워크 관련 하이테크 기업 10개사가 참가해 많은 성과를 올렸다.

보안솔루션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삼영인텍은 현재 40여 개국에 수출 중인 지문 인식 장치인 '니트젠'을 전시회 기간 동안 미 해군 및 대학 연구소 등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40만 달러의 상담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무선 네트워크 안테나 솔루션 개발업체인 엠씨테크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미국 현지 업체와 상담을 벌였고 전시회 개장일 하루만에 30만 달러의 상담성과를 거둬 향후 미국 시장을 비롯한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또, IT기반 서버컨트롤보안 솔루션업체인 스텝정보통신은 미국바이어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상담건수가 계속 이어지는 등 호응을 얻었다.

미국시장은 높은 잠재 구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울러 매우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명 전시회를 통해 적극적인 해외 진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머지 않아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석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1. 한국관 스텝정보통신의 제품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는 참관객들

2. 시스코 시스템 전시관

3. 한국관 엠씨테크에서 상담중인 바이어

4. HP부스에 모인 참관객들

